

국내 천식 환자의 진료경향 분석



신서희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Key Point

- ☑ 기관지 천식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이나,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 민감성 질환임.
- ☑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 및 예방이 가능한 질환임에도 2015년 기준 국내 천식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94.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46.6명에 비해 높은 수준임.
- ☑ 국내 천식 환자의 진료경향 분석을 통해 천식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천식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Key Word 천식, 진료경향, 천식처방

1. 들어가며

천식이란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예민해져 때때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을 말한다.

천식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에 속하나, 꾸준히 외래 방문을 통해 천식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받으면 증상 악화 및 이로 인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천식에 대해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 발표된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인구 10만 명당 천식 입원율은 94.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46.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본 분석에서는 한국에서 천식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연도 별로 분석하여 국내 천식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가.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천식(J45, J46)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환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¹⁾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준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2013년~2017년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관점으로는 연도별, 입원·외래별, 의료기관 종별, 월별, 환자 연령별, 의약품 성분별 등을, 분석 값으로는 진료인원, 진료비, 입·내원일수, 처방횟수 등을 추출하였다.

(표 1) 분석 자료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자료: 2013년 1월 ~ 2018년 6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진료 기간: 요양개시일자 기준 2013.1.1.~2017.12.31. · 보험자 유형: 건강보험, 의료급여 · 요양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
분석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 입원·외래별 · 의료기관 종별 · 월별 · 환자 연령별 · 의약품 성분별
분석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인원 · 진료비 · 입·내원일수 · 처방횟수

나. 분석 대상 정의

천식(J45, J46)에 대한 정의는 주, 부상병의 범위와 치료에 대한 정의 등에 따라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다. 천식을 주 또는 제4부상병²⁾ 이내로 진료 받은 환자로 정의할 경우 천식 환자는 2017년 기준 약 546만 명이었으며, 2013년 566만 명 대비 3.9% 감소하였고, 천식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로 정의할 경우 천식 환자는 약 308만 명으로

1)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는 심사결정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어, 진료 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구자료를 요양개시일자 기준으로 재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함.

2) 주상병은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병태로서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병태를 의미하며, 부상병은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진료기간 중 발생되어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병태를 말하며 주된 하나의 상병 이외는 모두 부상병임.

2013년 대비 15.9% 감소하였다. 천식 환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상세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치료 횟수나 관련 의약품 사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간 천식(J45, J46)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에서 ① 천식 관련 의약품을 처방한 외래 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②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 진료가 있고 천식 관련 의약품을 처방한 외래 진료가 있는 환자를 분석 대상으로 정의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여기서 천식 관련 의약품은 (표 3)과 같다.

(표 2) 분석 대상 정의

(단위: 천명)

천식을 주 또는 제4부상병 이내로 진료 받은 환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655	5,950	5,836	5,975	5,435

↓

천식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663	3,674	3,484	3,461	3,080

↓

연간 천식 관련 약제를 처방한 외래 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 진료가 있으면서 천식 관련 약제를 처방한 외래 진료가 있는 환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93	1,769	1,653	1,631	1,419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3) 천식 관련 의약품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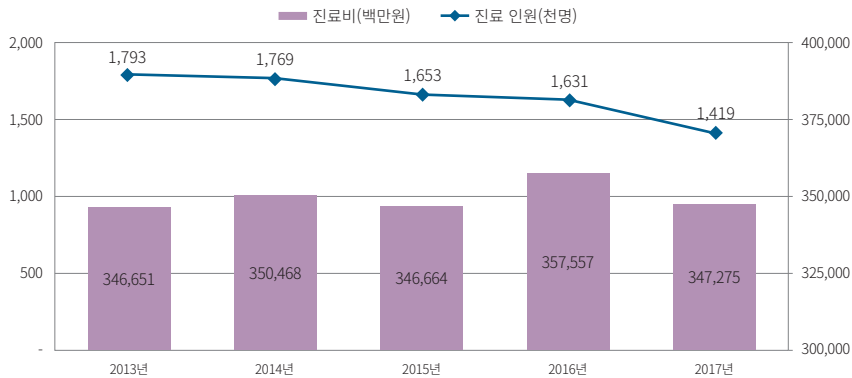
성분군	성분명
흡입스테로이드 (Inhaled Corticosteroid, ICS)	budesonide, beclomethasone, ciclesonide, fluticasone
류코트리엔조절제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LTRA)	montelukast, pranlukast, zafirlukast
지속성베타2항진제(경구) (Long-Acting Beta2 Agonist, LABA)	bambuterol, formoterol, clenbuterol, ambroxol, tulobuterol
속효성베타2항진제 (Short-Acting Beta2 Agonist, SABA)	salbutamol, fenoterol, procaterol, terbutaline
항콜린제 (Anticholinergics)	ipratropium, tiotropium
Xanthine 유도제	aminophylline, bamiphylline, doxofylline, theophylline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차 천식 적정성 평가 대상 참고. 2017.

3. 분석 결과

가. 최근 5년 천식 진료 현황

최근 5년 천식 진료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3년 약 179만 명에서 2017년 142만 명으로 2013년 대비 20.9% 감소하였다. 2017년 천식 환자들의 원외처방약제비³⁾를 포함한 진료비 총액은 약 3,473억 원으로 2013년 3,467억 원 대비 0.2% 증가하였다.



[그림 1] 최근 5년 천식 진료 현황

주: 진료비에는 원외처방약제비가 포함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외래 진료 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7년 외래 진료비 총액은 약 2,262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총액 3,473억 원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외래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5.37일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해당 환자들의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진료비는 159,447원이었다. 최근 5년 1인당 외래 내원일수는 감소 추세에서 2017년 소폭 반등하였으며, 1인당 외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2017년 기준 약 6만 8천 명으로 전체 진료인원 142만 명 중 4.8%의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 환자 비율은 2013년 4.3%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수가 전체 진료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낮으나, 해당 환자들의 입원 진료비 총액은 약 1,21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35%의 비중을 차지한다. 환자 단위로 살펴보면 2017년 입원 환자들은 연간 평균적으로 10.72일 입원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77만원 이었다. 최근 5년 2017년을 제외하고 1인당 입원일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1인당 입원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약국의 조제 실적에는 상병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기준으로 약제비를 산출함. 원외처방약제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약제비로, 실제 약국의 조제 실적과는 다를 수 있음.

진료 현황

(표 4) 최근 5년 입원·외래별 천식 진료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일,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외래	진료인원	1,793	1,769	1,653	1,631	1,419
	진료비	234,707	235,009	227,335	234,484	226,222
	1인당 내원일수	5.82	5.64	5.47	5.35	5.37
	1인당 진료비	130,879	132,860	137,511	143,792	159,447
입원	진료인원	77	76	75	78	68
	진료비	111,944	115,459	119,329	123,073	121,053
	1인당 입원일수	11.93	11.71	11.45	10.36	10.72
	1인당 진료비	1,462,556	1,512,136	1,583,387	1,587,061	1,773,931

주: 1인당 내원일수 = 내원일수 /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진료인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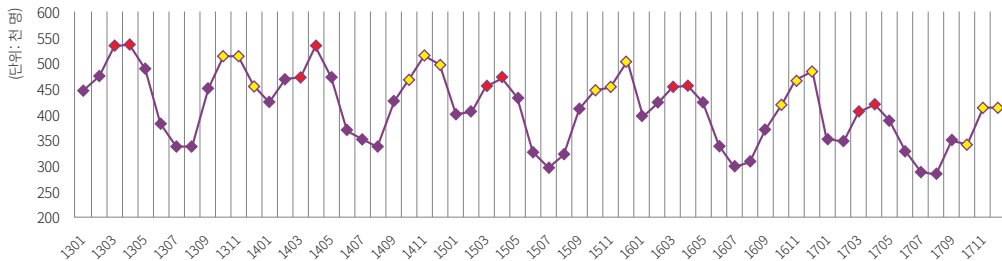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월별로는 3~4월과 10~12월에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환절기 꽃가루나 일교차에 의한 기관지 자극으로 증상이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 최근 5년 요양기관 종별 천식 진료인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급종합병원	74	69	68	76	77
종합병원	194	192	181	183	170
병원	217	223	219	220	198
요양병원	7	6	6	5	5
의원	1,523	1,491	1,378	1,341	1,139
보건기관 등	8	7	6	5	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 2] 최근 5년 월별 천식 진료인원 현황

주: 빨간점은 3~4월, 노란점은 10~12월을 나타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최근 5년 연령별 천식 진료 현황

2017년 연령별 천식 진료인원은 15세 미만 환자가 약 61만 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2.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 연령층이 약 40만 명으로 2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6) 최근 5년 연령별 천식 진료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진료인원	15세미만	858	(47.8)	834	(47.1)	759	(45.9)	739	(45.3)	609	(42.9)
	15~29세	88	(4.9)	87	(4.9)	82	(4.9)	84	(5.2)	76	(5.3)
	30~44세	179	(10.0)	176	(10.0)	156	(9.5)	158	(9.7)	132	(9.3)
	45~59세	247	(13.8)	247	(14.0)	230	(14.0)	228	(14.0)	203	(14.3)
	60~74세	282	(15.7)	279	(15.8)	273	(16.5)	271	(16.6)	249	(17.6)
	75세이상	140	(7.8)	146	(8.3)	152	(9.2)	150	(9.2)	150	(10.6)
진료비	15세미만	858	(32.9)	834	(32.1)	759	(30.5)	739	(28.5)	609	(25.4)
	15~29세	88	(3.3)	87	(3.4)	82	(3.5)	84	(3.9)	76	(4.0)
	30~44세	179	(7.5)	176	(7.5)	156	(7.2)	158	(7.6)	132	(7.5)
	45~59세	247	(15.1)	247	(15.3)	230	(15.2)	228	(15.6)	203	(15.8)
	60~74세	282	(23.5)	279	(23.0)	273	(23.6)	271	(24.1)	249	(25.1)
	75세이상	140	(17.7)	146	(18.7)	152	(20.0)	150	(20.3)	150	(22.2)

주: ()는 전체 대비 해당 연령층의 점유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령별 천식 외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연간 외래 내원일수는 75세 이상 연령층이 6.53일로 가장 높았고, 15~29세 연령층은 연간 3.84일 내원하며 가장 낮은 방문율을 보였다. 1인당 외래 진료비는 최근 5년 소폭 증가하였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1인당 외래 진료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5세 미만 연령층의 외래 진료비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진료현황과
진료경향

(표 7) 최근 5년 연령별 천식 외래 진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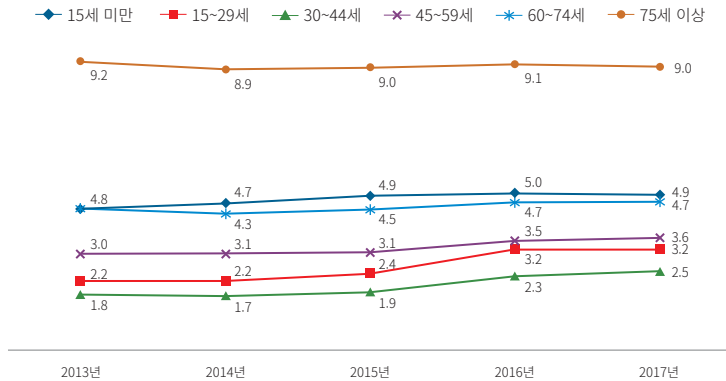
(단위: 일,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인당 내원일수	15세미만	6.16	5.89	5.6	5.47	5.48
	15~29세	3.71	3.7	3.7	3.75	3.84
	30~44세	4.27	4.24	4.21	4.19	4.29
	45~59세	5.04	4.97	4.92	4.84	4.91
	60~74세	6.39	6.24	6.04	5.87	5.84
	75세이상	7.24	7.08	6.84	6.65	6.53
1인당 외래 진료비	15세미만	97,946	98,183	97,306	97,913	103,129
	15~29세	104,730	108,674	118,395	129,162	145,845
	30~44세	119,401	122,726	131,083	140,114	158,315
	45~59세	153,314	155,202	163,035	173,550	193,469
	60~74세	189,445	190,438	194,787	205,711	225,869
	75세이상	206,042	209,722	213,551	224,422	239,39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령별 천식 입원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입원 환자 비율(입원 진료인원/전체 진료인원×100)이 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세 미만 연령층에서 입원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층의 입원 환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15~29세 연령층과 30~44세 연령층에서 입원 환자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입원 진료비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져 15세 미만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약 85만원인데 반해 7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약 304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최근 5년 연령별 입원 환자 비율(%) 현황

주: 입원 환자 비율(%) = 입원 진료인원 / 전체 진료인원 × 1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8) 최근 5년 연령별 천식 입원 진료 현황

(단위: %, 일,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입원 환자 비율	15세미만	4.5	4.7	4.9	5.0	4.9
	15~29세	2.2	2.2	2.4	3.2	3.2
	30~44세	1.8	1.7	1.9	2.3	2.5
	45~59세	3.0	3.1	3.1	3.5	3.6
	60~74세	4.4	4.3	4.5	4.7	4.7
	75세이상	9.2	8.9	9.0	9.1	9.0
1인당 입원일수	15세미만	7.4	7.09	7.14	6.49	6.53
	15~29세	7.94	8.08	8.25	6.52	6.28
	30~44세	9.99	10.23	9.41	7.37	7.61
	45~59세	15.57	15.33	14.77	12.39	12.12
	60~74세	15.72	15.5	14.88	13.89	13.86
	75세이상	20.78	20.76	19.28	17.91	18.11
1인당 입원 진료비	15세미만	774,678	790,670	852,381	805,341	849,593
	15~29세	1,194,316	1,220,703	1,295,590	1,162,172	1,169,543
	30~44세	1,424,796	1,534,059	1,504,494	1,351,592	1,502,197
	45~59세	1,948,956	2,039,973	2,092,221	2,028,817	2,183,928
	60~74세	2,239,292	2,284,949	2,342,595	2,388,764	2,625,591
	75세이상	2,534,401	2,678,556	2,691,928	2,840,063	3,040,174

주: 입원 환자 비율(%) = 입원 진료인원 / 전체 진료인원 × 1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최근 5년 천식 관련 의약품 처방 현황

기관지 천식의 치료는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이루어지며 천식 증상을 잘 조절하고 폐기능을 정상화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치료 방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약물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 투여 방법, 그리고 투여 기간 등은 천식의 증상, 천식의 심한 정도, 환자의 나이 및 전신 상태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천식 관련 의약품은 크게 지속적인 사용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천식 조절제와 증상이 심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천식 조절제에는 흡입스테로이드(ICS), 복합 흡입스테로이드(ICS/LABA), 류코트리엔조절제(LTRA) 등이 있으며 증상 완화

신약개발사업
진료정보관리부

제에는 경구용 지속성베타2항진제(LABA), 속효성베타2항진제(SABA), 항콜린제, Xanthine 유도제 등이 있다. 2015년 천식진료지침에 따르면 천식 조절제인 흡입스테로이드(ICS)가 천식 조절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약물로 가능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15).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3년부터 천식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별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천식환자가 필수적인 천식약을 꾸준히 처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천식 처방 현황을 조절제와 완화제 사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7년 천식 조절제 처방 환자 비율은 70.6%였으며 2013년 67.5%에서 3.1% 증가하였으나, 평균 처방 횟수는 2013년 4.2회에서 2017년 3.9회로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15세 미만 환자에서 조절제 처방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상 환자에서 조절제 처방 환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최근 5년 천식 조절제 처방 현황

(단위: %, 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전체	67.5	4.2	69.4	4.1	71.3	4.0	70.6	3.9	70.6	3.9
15세미만	74.3	4.3	76.4	4.2	78.6	4.1	76.6	3.9	76.7	3.9
15~29세	64.2	2.9	65.2	2.9	66.9	3.0	66.8	3.0	66.3	3.0
30~44세	63.0	3.3	64.9	3.3	66.9	3.3	66.8	3.3	67.7	3.4
45~59세	62.1	3.8	64.1	3.8	66.3	3.8	66.9	3.8	67.4	3.9
60~74세	60.0	4.4	62.1	4.4	64.1	4.3	64.8	4.3	65.5	4.3
75세이상	57.7	4.8	60.3	4.7	62.2	4.7	63.3	4.6	63.6	4.6

주: 1) 처방 환자 비율(%) = 천식 조절제 처방인원 / 전체 진료인원 × 100

2) 평균 처방횟수(회) = 천식 조절제 처방건수 / 천식 조절제 처방인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증상 완화제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증상 완화제 처방 환자 비율은 79.7%로 2013년 82.3%에서 2.6% 감소하였고, 평균 처방 횟수도 2013년 4.7회에서 2017년 4.3회로 소폭 감소하였다. 15세 미만에서 완화제 처방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7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 완화제 처방 환자 비율은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최근 5년 증상 완화제 처방 현황

(단위: %, 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전체	82.3	4.7	81.1	4.6	80.5	4.4	80.9	4.3	79.7	4.3
15세미만	91.7	5.0	91.4	4.8	91.5	4.6	92.9	4.6	93.3	4.6
15~29세	67.0	2.9	66.1	2.9	66.6	2.9	67.7	2.8	67.4	2.8
30~44세	68.0	3.3	66.5	3.3	66.4	3.2	67.2	3.2	65.2	3.2
45~59세	71.2	4.0	69.4	3.9	68.2	3.8	67.9	3.7	65.9	3.8
60~74세	77.2	5.0	75.0	4.9	73.6	4.7	72.7	4.5	70.8	4.4
75세이상	82.4	5.7	80.3	5.6	79.1	5.3	77.9	5.2	76.6	5.0

주: 1) 처방 환자 비율(%) = 증상 완화제 처방인원 / 전체 진료인원 × 100

2) 평균 처방횟수(회) = 증상 완화제 처방건수 / 증상 완화제 처방인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성분별로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조절제 중에서는 2017년 류코트리엔조절제(LTRA)를 처방한 환자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다. 천식진료지침에서 권장하는 흡입스테로이드(ICS)와 복합 흡입스테로이드(ICS/LABA)를 처방한 환자 비율은 2017년 각각 31.7%와 19.4%로 다소 낮았으나 2013년부터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완화제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경구용 지속성베타2항진제(LABA) 처방 환자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속효성베타2항진제(SABA), 항콜린제, Xanthine 유도제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처방 현황을 비교하면, 완화제 중에서 속효성베타2항진제(SABA)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들의 의약품 처방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차별화된
진료영역

(표 11) 최근 5년 천식 의약품 성분별 처방 현황

(단위: %, 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처방 환자 비율	평균 처방 횟수	
조절제	ICS	30.0	3.1	31.0	3.1	32.1	3.1	3.1	3.0	31.7	3.0
	ICS/LABA	11.7	3.1	12.8	3.0	14.5	3.1	3.1	3.1	19.4	3.2
	LTRA	48.9	3.9	50.5	3.9	51.3	3.8	3.8	3.7	47.8	3.7
완화제	LABA	52.8	4.3	51.9	4.1	50.9	4.0	4.0	3.9	49.5	4.0
	SABA	43.6	3.5	43.7	3.4	44.2	3.3	3.3	3.2	43.9	3.2
	항콜린제	38.8	2.5	37.4	2.5	36.4	2.4	2.4	2.3	33.7	2.5
	Xanthine 유도제	33.8	4.1	32.2	4.0	31.5	3.9	3.9	3.8	30.4	3.8

주: 1) 처방 환자 비율(%) = 해당 의약품 성분 처방인원 / 전체 진료인원 × 100

2) 평균 처방횟수(회) = 해당 의약품 처방건수 / 해당 의약품 성분 처방인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최근 5년 천식 관련 응급실 방문 현황

천식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심한 기침,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다. 천식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비율은 2.05%로 2013년 1.91%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간 평균적으로 1.33회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방문 환자 비율은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29세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2) 최근 5년 천식 관련 응급실 방문 현황

(단위: %, 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응급실 환자 비율	평균 방문 횟수	응급실 환자 비율	평균 방문 횟수	응급실 환자 비율	평균 방문 횟수	응급실 환자 비율	평균 방문 횟수	응급실 환자 비율	평균 방문 횟수
전체	1.91	1.25	1.91	1.26	1.84	1.26	1.93	1.3	2.05	1.33
15세미만	1.60	1.16	1.63	1.15	1.39	1.14	1.36	1.15	1.30	1.16
15~29세	2.43	1.19	2.36	1.23	2.53	1.24	2.85	1.27	3.11	1.28
30~44세	1.57	1.3	1.56	1.33	1.62	1.34	1.85	1.39	2.11	1.37
45~59세	1.64	1.39	1.68	1.42	1.68	1.42	1.95	1.46	2.11	1.52
60~74세	2.04	1.35	1.90	1.35	1.90	1.34	2.00	1.4	2.09	1.4
75세이상	4.13	1.28	4.06	1.3	4.09	1.28	4.22	1.33	4.30	1.35

주: 1) 응급실 환자 비율(%) = 응급실 방문인원 / 전체 진료인원 × 100

2) 평균 방문횟수(회) = 응급실 방문횟수 / 응급실 방문인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나가며

본 분석에서는 한국에서 천식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영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국내 천식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17년 천식 환자는 약 142만 명으로 최근 5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천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이용 비용은 2017년 기준 약 3,473억 원이었다. 천식은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주로 의원급 기관을 통한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외래 진료비는 약 2,262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5% 정도를 차지하였다.

천식이 악화될 경우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2017년 기준 약 4.8%의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는 35%를 차지하였다. 천식으로 인한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1인당 연평균 10.72일 입원하였으며, 1인당 평균 177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월별로 천식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 환절기인 3~4월과 늦가을에서 초겨울인 10~12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천식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60세 이상 환자가 약 2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5년 연령별 진료 현황을 비교할 때, 인구 구조의 변화로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60세 이상 환자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환자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와 입원 진료비는 2017년 기준 각각 약 24만원, 304만원으로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천식 환자에 비해 각각 2배, 3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천식 진료인원은 감소한 반면 전체 천식 진료비는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천식 관련 의약품 처방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천식 조절제 처방 환자 비율은 70.6%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류코트리엔조절제(LTRA)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흡입 스테로이드 계열(ICS, ICS/LABA) 처방 환자 비율은 각각 31.7%, 19.4%로 여전히 낮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었다. 2017년 증상 완화제 처방 환자 비율은 79.7%로 천식 조절제보다 증상 완화제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성분별로는 경구용 지속성베타2항진제(LABA), 속효성2항진제(SABA), 항콜린제, Xanthine 유도제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천식의 치료는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이루어지며 천식 증상을 잘 조절하고 폐기능을 정상화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치료 방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천식 증상을 잘 조절하기 위한 조절제 처방 환자 비율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천식 조절제보다 증상 완화제의 처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일수록 천식의 중증도는 일반적으로 높아지는데,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상 완화제 처방

환자 비율이 높고, 천식 조절제 처방 환자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천식 악화로 인한 입원, 응급실 방문 환자 비율 또한 7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식 악화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절제 처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천식 환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천식 환자에서 조절제 처방강도를 높이고 증상 완화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천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정성수, 박동일.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 천식 처방 패턴과 천식 조절 정도 분석. 충남대학교.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기준 OECD 보건통계 해설서.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한국 천식 진료 지침. 한국: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15.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http://snuh.org/>)